

삼수령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김창환**

Geotourism Using Samsuryeong Pass

Chang Hwan Kim**

요약 : 삼수령 일원은 태백산맥이 지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지지역이자 석회암 및 무연탄 매장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형·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역사적 유산 또한 풍부하다. 본 연구는 삼수령이 지나는 지리적 함의와 주변의 지형·지질유산을 기초적으로 정리한 후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삼수령은 양질의 지오투어리즘의 개발 및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따라서 삼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오투어리즘의 개발과 도입은 태백시 일원 지오파크 인증 준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지오파크, 지형·지질유산, 태백시

Abstract : The whole area of the Samsuryeong Pass is a representative mountains of Korea and the deposits of the limestone and anthracite. Therefore, there is a rich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s which is related to the geohérita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pplicable alternative to the geotourism of Samsuryeong Pass after exploring geographical implications and geohéritages with Samsuryeong Pass. It is one of the best places which has high potentials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geotourism.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geotourism which is focused upon Samsuryeong Pass, may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Taebaek-si for a geopark's certificate.

Key Words : Samsuryeong Pass, Geotourism, Geopark, Geoheritage, Taebaek-si

I. 서론

삼수령(三水嶺, 920m)은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과 적각동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태백과 삼척을 연결하는 35번 국도가 지나간다. 삼수령은 이름 그대로 세 개의 물길이 갈라지는 고개로 한강, 낙동강, 삼척 오십천의 분수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 물길이 갈라지는 곳은 여러 곳이지만, 동해(오십천), 남해(낙동강), 서해(한강)로 흐르는 3대강의 분수계가 만나는 곳은 삼수령이 유일하다(박종철·장동호, 2011). 이와 더불어 삼수령은 조선 영조 때 신경준이 편찬한 산경표에 근거하면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이다(조선광문회 편, 1913). 우리 선조들은 국토를 신체에 비유하여 백두대간을 줄기로 1정간과 13정맥을 가지로 하는 연속적인 단위로 인식하였으며, 고대부터 백두대간과 같은 분수계에 분수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수령은 분수계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손꼽힐 수 있다.

삼수령 일원은 태백산맥이 지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지역이자 석회암 및 무연탄 매장지이다. 이에 따라 인근에는 고위평탄면, 평정봉, 카르스트 용천, 석회동굴, 고생대 화석, 광산 등 다양한 지형·지질유산(Geohéritage)

*본 연구는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120141437).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hillskim@kangwon.ac.kr)

이 분포하고 있으며, 화전, 광산촌, 고랭지농업 등 지형·지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역사적 유산 또한 풍부하게 나타난다. 최근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지형·지질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유형인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제주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어 관광산업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수령은 '분수계로서 지니는 높은 지리적 함의', '주변에 분포하는 다양한 지형·지질유산' 등 양질의 지오투어리즘의 개발 및 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더 나아가서 삼수령은 태백시 일원의 지오파크(Geopark) 추진 시 중요한 지형·지질명소(Geosite)의 한 곳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삼수령이 지니는 지리적 함의와 주변의 지형·지질유산을 기초적으로 정리한 후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본 고에서의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은 태백시 전체가 아니라 삼수령 주변 지역으로 제한함을 밝혀둔다. 태백시 전체의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II. 지오투어리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이란 다양하고도 우수한 지형 및 지질자원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이다. 지오투어리즘은 일반 생태관광과는 달리 계절적 제약이 없을뿐더러 탐방객들에게 지형 및 지질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지금까지 두드러진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지가 될 수 없었던 지역에 새로운 관광대상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의 지오투어리즘의 경제적 성공은 관광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김창환, 2009; 2011).

지오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으로 인해 모습을 나타낸 노두 또는 지층, 화석이나 특이한 암석과 광물 그리고 이들의 풍화, 침식, 퇴적, 침강, 융기 등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지형 등이다. 지오투어리즘은 우리나라에서 지질관광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단순히 지질 뿐만 아니라 지형·경관도 관광의 주요 대상이므로 보다 폭 넓은 용어인 지

형·지질관광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전영권, 2005). 또한 지오투어리즘이 단순히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들을 토대로 형성되어온, 문화적, 역사적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질학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지질관광'이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인 '지리관광'으로 해석하며, 지질 또는 지형·지질자원체로 관광 대상을 국한시키기 보다는 문화·역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문화·지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의 주된 목적은 지형과 지질을 포괄하는 지구과학(Earth Science)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탐방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해설체계와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지구과학적 지식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오투어리즘은 1980년대부터 자연생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온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 산업 성장의 큰 동력은 집중적인 교육과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활성화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Gates, 2006). 물론 제주도나 설악산 등 수려한 경관이 풍부한 경우 지오투어리즘 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다소 경관성이 떨어지더라도 해당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스토리로 엮어 잘만 구성한다면 자연이 가지는 독특함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 이상으로 훌륭한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주의 노천 박물관이라 일컬어지는 남산이 비록 수려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강암 산지에 분포하는 화강암을 재료로 한 신라 천년의 혼이 스며있는 각종 불상이나 탑 등의 불교문화유적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는 또 다른 훌륭한 지오투어리즘 자원이 될 수 있어 경주 남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오투어리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박미영·박경, 2011).

Dowling and Newsome(2010)에 따르면 지오투어리즘은 탐방객의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확장된 의미로 지질과 경관에 초점을 맞춘 자연 지역 관광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지질명소의 관광을 장려하고, 지형·지질적 다양성을 보전하며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 효과들은 지질학적 특징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탐방로(geotrails)와 전망 포인트(view point)의 적절한 활용, 가이드를 동반한 관광, 지

리 관련 활동(geoactivities)과 지오사이트(geosite) 및 방문객 센터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전영권, 2010).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이란 단순히 지형 및 지질경관자원의 감상수준을 넘어서 지형과 지질자원을 통해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탐방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 해설 체계와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지구 과학적 지식을 탐방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III. 삼수령의 지리적 함의

삼수령의 과거 지명은 피재이다. 피재는 과거 삼척지역 사람들이 황지 지역이 이상향이라 하여 시질이 어수선하면 난리를 피해 이 고개를 넘어 왔기에 피난 온 고개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또한 피재를 피산장등(彼山長嶺)이라고 하는데 피안(彼岸, 이상향, 고통이 없는 이상향)으로 가는 큰 산등이란 뜻이다. 한편, 삼수령을 직치(稷峙)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피재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피 직(稷)자를 쓴 것이다(김강산, 1989). 현재의 삼수령이란 지명은 벼과의 한해살이 풀을 의미하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피재의 어감이 좋지 않아 태백사에서 개칭한 것으로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세 물길이 갈리는 곳, 즉 세 유역의 분수계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수령이라는 지명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합한 지명이 아닐 수 없다. 삼수령은 국토해양부의 유역분지 대권역 분류 상 한강 권역, 낙동강 권역 그리고 한강동해 권역이 만난다. 중권역 분류에 의하면 한강 권역의 남한강 상류 유역, 낙동강 권역의 안동댐 유역, 한강동해 권역의 삼척 오십천 유역이 만나고 있다. 이 세 유역의 경계지점이 삼수령이다(박중철·장동호, 2011). 이는 우리나라의 세 바다인 황해, 남해, 동해의 분수계를 이루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삼수령 북쪽에 위치한 한강 권역의 남한강 상류 유역에는 골지천이 흐르고 있다. 골지천은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김릉소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삼척시 하장면의 남부를 가로지르고, 정선군 임계면 고지리에서 북쪽으로 흘러 낙천리에 이르러 북서쪽에서 오는 임계천(일명 화천)을 합하여 서쪽으로 꺾여 흘러서 정선군 북면 여량리에서 송천과 합류한다. 골지천은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서 광동댐에 의하여 광동호(湖)를 이룬다. 골지천은 석회암 지대를 흐르는 관계

로 상류 일부 구간은 건천을 이루는 곳도 많다. 골지천은 하상의 고도가 350~750m로서 높은 해발고도에 분포하는 대한천 상류의 산지하천이다(윤순옥 등, 2007).

삼수령 남쪽에 위치한 낙동강 권역의 안동댐 유역에는 황지천이 흐른다. 황지천은 반변천, 내성천, 남강, 밀양강 등과 더불어 낙동강 권역의 주요유입 제1지류이다. 황지천 상류 역시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다(박중철·장동호, 2011).

삼수령 동쪽에 위치한 한강동해 권역의 삼척 오십천 유역에는 삼척 오십천이 흐르고 있다. 오십천은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길이는 48.8km이고 유역면적은 294km²이다. 발원 후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도계읍 심포리에서 북북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흐르며 삼척시 마평동에서 동쪽으로 꺾여 동해에 이른다. 오십천의 주요 지류하천은 무릉천을 포함하여 15개 하천이다.

한편, 삼수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현재 삼수령 조형물과 삼수정이 있는 곳을 삼수령 즉, 분수계라 생각하기 쉽다. 분수계는 능선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곳은 능선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해당된다. 박중철·장동호(2011)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삼수령 위치가 밝혀졌는데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갈림길의 이정표가 있는 곳으로 현재 삼수령 조형물이 있는 지점에서 매봉산 능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1km 지점이다(그림 1).

1. 물길과 지역, 그리고 문화의 경계

삼수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강, 낙동강 그리고 삼척 오십천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분수계(分水界, divide)는 비가 내렸을 때 흘러가는 방향이 각각 반대방향일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는 선으로 분수령이라고도 부른다. 분수계는 일반적으로 하천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며, 산맥의 봉우리를 이은 선에 해당한다. 유역은 쉽게 말하면 강수 지역의 범위를 가리킨다.

분수계는 유역분지의 경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생활권의 경계로서 지리학에서 의미 있게 조명되곤 하였다. 최근에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활권 경계로서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수계는 우리에게 수문 경계, 지형 경계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수계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지각 표층의 물의 흐름과 방향을 경계 짓고 유역을 분리하는 지형적 실체이다(이민부·한주엽, 2000). 또한 분수계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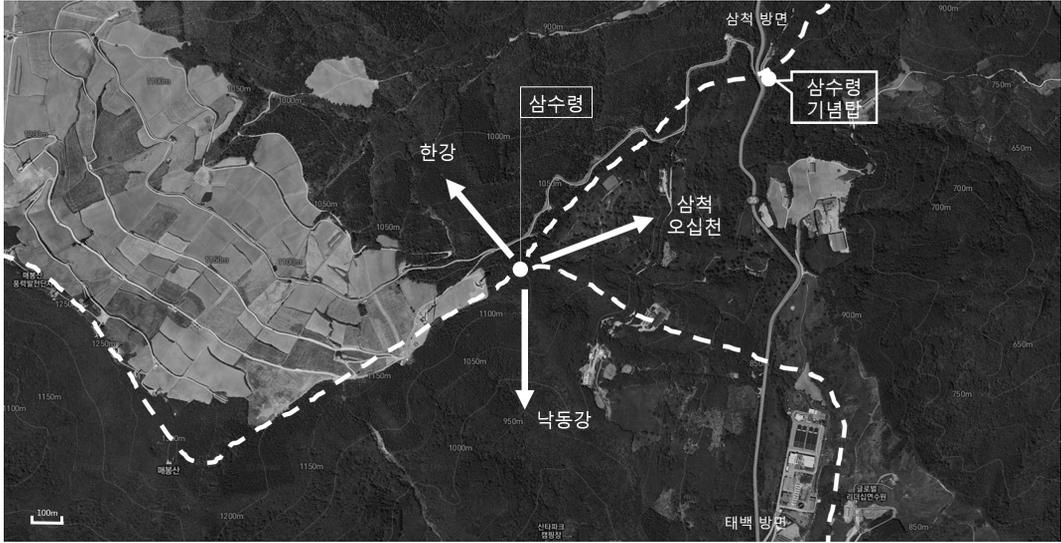


그림 1. 삼수령 기념탑과 실질적인 삼수령 분수계의 위치



그림 2. 피재 정상에 있는 삼수령 조형물

형형성 과정에서 보면 사면의 경사와 방향을 결정하고 사면물질의 이동 방향을 경계 짓기도 한다. 이민부·한주엽(2000)에 의하면, 분수계는 지형적 실체이며, 지역의 지형 연구 분야에서 자연적 경계로서 설정된다고 하였다. 특히 분수계는 물의 흐름을 분리하는 곳으로, 지형 분수계는 지표면의 고도에 의해 결정되고, 지하수 분수계는 지형, 지질구조, 선구조적 지형 요소들의 배열, 지층의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권혁재(2000; 2005)는 우리의 선조들이 고대부터 큰 강의 유역분지를



그림 3. 새롭게 조성된 삼수령 분수계의 정점

가르는 백두대간과 같은 분수계에 분수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고 하였다. 손일(2003)은 분수계를 경계로 기후, 언어, 음식 등이 달라지며, 이와 동시에 분수계에 나뉘는 유역분지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나름의 생활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이해하고 구분 짓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종철·장동호, 2011).

2. 전통적 국토인식체계 학습의 장

삼수령은 산경표에 근거하면 백두대간이 지나며, 낙동정맥이 뺏어나가는 지점에 위치한다. 우리 선조들은

국토를 신체에 비유하여 백두대간을 줄기로 1정간과 13정맥을 가지로 하는 연속적인 단위로 인식하였다. '산경(山經)이란 산의 경과(經過), 즉 산의 흐름을 천(직물)의 날줄(날실)에 비유한 말이다. 『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흐르다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족보 형식으로 도표화(圖表化)한 책이다. 백두산(白頭山)으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기동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고, 이 기동줄기로부터 뻗어나간 2차적 산줄기를 정간·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1정간·13정맥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이 줄기에서 갈라져 나간 크고 작은 갈래의 산·고개·일반 지명을 산줄기별로 분류하여 도표로 만들었다. 편집체제를 마치 족보와 같이 하였는데, 백두산을 1세 할아버지로 친다면 지리산은 123세 손이며 가장 길게 뻗어나간 줄기의 마지막 자손은 전남 광양의 백운산으로서 171세 손이 된다. 『산경표』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 산의 족보이다(한국일보, 2012).

백두대간과 정간, 정맥은 우리나라 산의 생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땅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을 그리되 반드시 물줄기와 연계하여 그린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분수계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형을 백두대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산줄기가 어느 산에서 시작하여 어느 산을 거쳐 어느 산에서 끝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백두대간과 정간, 정맥에 의하면 산줄기와 물줄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형을 실제 지형과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선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형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 역사, 풍습, 방언, 음악, 건축, 지역감정 등 모든 지리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분수계가 더 이상 접근성의 장벽이 되지 않게 되면서 과거처럼 생활권을 규정짓는 경계선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 교통로로 이용되던 하천의 흐름이 분수계의 역할을 하는 산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가 발달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즉, 산줄기가 지역 구분 경계 역할을 하였기에 뱃길, 식생활, 주거양식, 언어권, 옛 보부상의 상권, 5일장의 상권, 배산임수의 취락분포 등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선조들은 고대부터 백두대간과 같은 분수계에 분수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수령은 분수계를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적인 국토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손꼽힌다.

IV.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1. 삼수령 주변의 지형·지질 및 문화유산

삼수령 주변의 지형·지질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높은 고도를 유지한 산지가 많지만 고위평탄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중생대 백악기 아래에 평탄화되었다가 신생대 제3기 중기에 이르러 요곡용기가 진행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형적 윤곽을 갖게 되었다. 요곡용기의 축은 동해 쪽에 치우쳐졌다. 그 결과 태백산맥의 분수계를 중심으로 동해 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서해 사면은 완만한 이른바 경동성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요곡용기 이전의 지형, 즉 제3기 중기 이전의 평탄면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곳곳에 널리 남아 있다. 오대산에서 태백산에 걸친 지역에는 해발 900m 이상의 고도에 300m 내외의 소기복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요곡용기 이전의 평탄면을 대표한다고 해석되는 이러한 소기복의 지형을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그러한 침식면이 화강암 편마암·편암·석회암 등 다양한 암석에 걸쳐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위평탄면은 기복이 완만하고 토양층이 두꺼워서 과거에는 화전으로 많이 일구어졌고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에는 채소류를 중심으로 하는 고랭지농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둘째, 삼수령 주변의 지질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실루리아기의 초기에 규암과 셰일층을 최하부로 한 대석회암층이 형성되었고(약 4억 년 전), 그 후 석탄기의 만항층(200m), 금천층(100m), 페름기의 장성층(100m), 함백산층(250m), 도사곡층, 고한층, 중생대 트리아이스기의 동고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이 중에서 장성층·함백산층·도사곡층·고한층·동고층은 육성층이고 나머지는 해성층이다. 특히, 장성층에서는 우리나라 무연탄의 대부분이 산출되었다. 태백시 장성동 금천에는 석탄 최초 발견지가 있다. 먹돌배기 마을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1926년 일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탄광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지역의 지명들이 석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석탄

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이우평, 2007). 이 지역을 중심으로 태백은 국내 최대의 탄광도시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탄광이 문을 닫고 최근에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여 관광, 스포츠, 레저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해성층인 대석회암층에서 방추층·연체동물·삼엽충 화석 등이 발견되며 육성층인 석탄층의 상부 세일층에서는 식물화석이 다량으로 산출된다.

대석회암층군의 분포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형적 특색이 나타난다. 산봉우리가 첨예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을 보인다. 대지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는 '돌리네' 등의 와지가 만들어진다. 하곡의 하단부 즉, 하곡 저평지가 사면과 만나는 부위에는 사면 경사가 비교적 급한 편이다. 지하에는 수직 또는 수평의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다. 평안누층군은 일대의 지표면에 있어 조선누층군과 함께 가장 넓은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발달한 삼수령 주변의 지형·지질 유산과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1) 매봉산

매봉산(1,303m)은 과거에는 천의봉이라 부르던 산이다. 이 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며 영남의 낙동정맥을 따라 산을 거슬러 올라오면 제일 높은 산이 된다. 그래서 과거 삼척시의 하장(下長)과 상장(上長)을 나눌 때 이 산이 기준이 되었다.

매봉산 정상부는 대표적인 평정봉이자 고위평탄면이다. 고위평탄면은 태백산맥의 서쪽으로는 해발고도가 높은 산정부 또는 능선부에 평탄한 지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칭한다. 즉, 태백산지가 요곡운동을 하기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평탄 지형의 일부가 산정부 또는 능선부에 고위평탄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평탄면은 경동성 요곡운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유물지형으로 용기 이전의 한반도가 평탄하였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는 용기 이후 지속된 개석작용으로 한반도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신생대 제3기, 한반도는 수평 횡압력에 의한 동해의 해저지각 확장으로 인해 용기하였는데, 이 때 용기축이 동쪽에 더 많이 치우쳐져서 동쪽은 높이 솟아올라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은 완경사를 이루어 동고서저의 비대칭적인 단면을 이루게 되었다. 이로 인해 태백산맥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남북,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산맥

들은 모두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1차적인 골격이라 할 수 있다.

매봉산 정상 일대에 발달한 고위평탄면은 삼수령 정상 좌측(삼척방면)에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주변 산지는 지질운동을 받은 관계로 경사가 급한 고산지대를 이루는 반면 일원에서는 기복이 작은 평탄한 지형이 넓게 나타나 경관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매봉산 일대는 국내의 대표적인 고랭지작물 재배지역으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는 귀네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1985년부터 3년에 걸쳐 건설된 광동댐으로 토지가 수몰되어 30여 가구의 수몰민들이 이주해 만든 곳이다. 고랭지 채소밭이 즐비한 배추단지 서쪽 외곽 능선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임도는 산의 정상부 능선을 달리는 '하늘길'로 해발고도 1,100m 내외이다. 이와 같이 매봉산은 태백산지 일대의 지형 발달과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형에 해당한다.

2) 검룡소

검룡소는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기슭의 석회암 지대에 발달한 둘레 20m의 규모의 카르스트 용천(karst spring)이다. 용천은 지하수가 자연 상태에서 지표로 분출하는 것으로 샘이라고도 한다. 검룡소의 경우 석회암지대에 나타나는 카르스트 용천에 해당된다. 태백시 시내 중심에 자리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도 카르스트 용천이다.

이곳은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졌으며 1일 용출량은 약 5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천에서 솟아난 물은 하부 기반암의 사면을 따라 폭포를 이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룡소에서 솟아난 물은 창죽천과 골지천 그리고 조양강, 동강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간다.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북사면에서 지하수맥과 연결된 석회암 동굴의 입구가 바닥에 노출되어 여기에서 용출되는 물에 의해 직경 약 6m 정도의 소(沼)를 이루고 이에서 용출되는 물은 50m정도 흘러 창죽천으로 유입된다. 검룡소 일대는 자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관리되어 자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검룡소(카르스트용천)에서 용출된 유수는 낙하하여 폭포를 이루며 창죽천을 형성한다. 상부와 하부의 낙차는 약 10m이다. 해당 폭포는 용천 말단에 괴상의 기반암이 자리 잡음에 따라 천이점을 이룬 후 유수가 폭포 사면을 비스듬히 덮어 흐르면서 마식작용을 가함에 따라 약

10여개의 폭포의 단과 그 하부의 등근와지(폭호)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현재는 장기간의 지형형성 작용에 따라 폭호가 파괴된 후 서로 결합하여 연속되어지는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검룡소에서 발원한 하천의 유수는 일부 구간에 걸쳐 지하의 수로로 집적되어 카르스트 건곡(blind valley)을 형성한다. 카르스트 건곡은 석회암 지대의 수계에서 비가 내려도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말한다.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보통 하천의 물이 강우 시에만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건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카르스트 지역은 수계의 발달이 매우 불량하다. 하천은 주로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 즉 카르스트 용천에 의해 함양되며, 이쪽 골짜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저쪽 골짜기에서 큰 샘으로 솟아날 수도 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은 하루의 금대봉 탐방안내센터 부근에서 재용출하여 지표에 하천을 이루게 된다.

3) 용연동굴

백두대간의 주봉인 금대봉 능선 하부에 위치한 석회동굴이다. 동굴을 구성하는 지층은 고생대 오르도비스 조선누층군 막골층에 해당하며, 석회동굴의 생성연대는 약 3억 년~1억5천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해당 석회동굴은 해발고도 92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석회동굴로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동굴의 수직적 발달이 양호한 편이다. 탄산칼슘의 침전에 의한 동굴 내 2차 생성물(스펠레오템)의 발달은 동굴산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용연동굴은 석회암 용식의 결과로 형성된 석회동굴이다. 석회암지대에서는 화학적 풍화작용 중 특히 용식과 관련하여 카르스트라고 불리는 특유한 지형이 발달한다. 카르스트 지형 중 용식과 관련하여 발달하는 지형을 1차

적 지형 그리고 탄산칼슘의 침전에 의해 형성된 지형을 2차적 지형이라고 한다. 1차적 지형은 다시 돌리네, 라피에 등과 같은 지표 지형과 석회동굴과 같은 지하 지형으로 구분된다. 2차적 지형은 지하 동굴 내에 형성된다.

4) 황지연못(카르스트용천)

황지연못은 태백시 황지동 시가지에 발달한 카르스트 용천으로 황지라는 지명으로 불린다.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졌으며 1일 용출량은 약 5천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카르스트 용천은 크게 3개의 물웅덩이(상지, 중지, 하지)로 구분되며 상지에서 용출된 물이 남류하여 흐르면서 낙동강을 이루게 된다. 용천의 총 둘레는 100m이다. 태백시민 뿐 아니라 많은 외래 관광객이 내방하는 명소이다.

한편, 황지는 낙동강 발원지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의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낙동강 발원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표 1과 같이 황지를 비롯한 5개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용소와 황지는 균열 또는 공동을 통해 지하수가 유출되는 용천으로 용천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용소는 용연동굴 인근의 석회암 층에 위치해 있으며, 황지는 고생대 석탄기 임진층군과 고생대 대석회암층군의 경계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사시사철 지하수가 솟아나오고 항시 유로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너털샘, 금샘 그리고 은대샘 등은 자유수면 대수층이 상승할 때 일시적으로 용출과 유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의 발원지는 용출의 연속성, 유로의 항시적 발달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용소를, 유로의 항시적 발달은 미약하지만, 우기에 물길이 연속된다면 너털샘이 발원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김도현·장동호, 2010).

표 1. 낙동강 발원지 제안 지점들의 지형 특성

발원지	좌표 (WGS84 경위도 좌표)	해발고도 (m)	용출 연속성	하구로부터의 거리 (km)
황지	37.173116N, 128.990966E	680.8	○	496.70
너털샘	37.198500N, 128.917167E	1,189.9	×	506.48
금샘	37.197028N, 128.916361E	1,256.9	×	506.66
은대샘	37.196861N, 128.916500E	1,269.7	×	506.67
용소	37.206306N, 128.941306E	817.8	○	503.77

* 김도현·장동호(2010)를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2. 삼수령의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구성

삼수령은 동해(오십천), 남해(낙동강), 서해(한강)로 흐르는 3대강의 분수계가 만나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다. 또한 백두대간이 지나고 낙동정맥이 뻗어져 나가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토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손꼽힌다. 따라서 분수계의 이해를 통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 파악과 기후, 역사, 풍습, 방언, 음악, 건축, 지역감정 등 모든 지리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의 출발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또한 삼수령 주변은 태백산지의 경동성 요곡운동의 유물지형인 고위평탄면이 잘 발달하고 있으며, 고위평탄면은 기복이 완만하고 토양층이 두꺼워 과거에는 화전으로 많이 일구어졌고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에는 채소류를 중심한 고랭지농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제1코스로는 “물과 바람을 나누는 고갯길을 따라가는 하늘 아래 첫 동네 탐방”이라는 주제로 삼수령-매봉산-검룡소 등의 지오사이트를 연결하는 루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삼수령 주변은 석회암층과 무연탄 매장지로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의 발달과 광산 개발에 따른 광산촌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카르스트 지형으로는 강원도지방기념물 제39호인 용연동굴과 카르스트 용천인 황지 등이 발달해 있다. 특히, 금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탄을 발견한 곳으로 최초 석탄발견지탐과 석탄 지층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은 먹돌배기 근처에 석탄 지층이 노두 형태로 나타나 있어 비만 오면 씻겨 주변 하천수가 검게 변해 거무내 즉 검천으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때부터 금천(黔川)이라 불렀다. 지금은 복숭아 나무를 심어 복사꽃길을 조성해 놓아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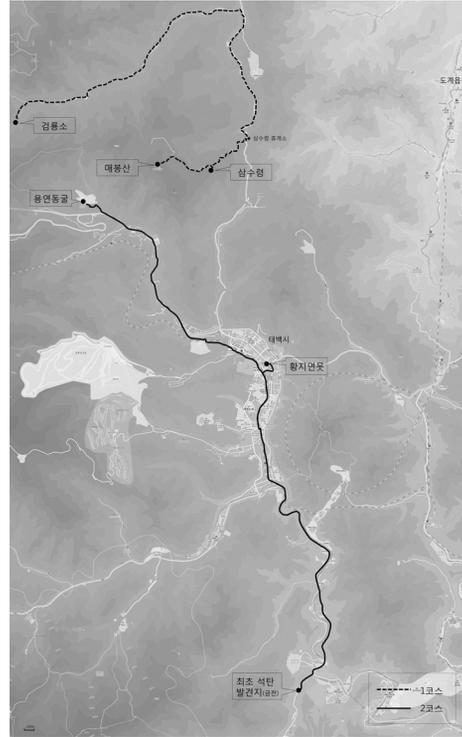


그림 4.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코스 안내도

제2코스는 “흑백문명(석탄과 석회암) 발상지 여행”이라는 주제로 용연동굴-황지-석탄 최초발견지-용연동굴등의 지오사이트를 연결하는 루트를 선정할 수 있다.

삼수령이 지닌 지리적 함의와 일대의 지형·지질유산 및 화전·광산촌 문화의 결합은 경쟁력 있는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기초적인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 구상은 표 2와 같다.

표 2. 삼수령 지오투어리즘 프로그램(예시)

코스	주제	구성	주요 내용
제1코스	물과 바람을 나누는 고갯길을 따라가는 하늘 아래 첫 동네 탐방	삼수령	○ 삼수령 탐방(삼수령~삼수령 등반) 및 지형·지질 해설
		매봉산	○ 고위평탄면 지형·지질해설 ○ 바람의 언덕(풍력발전단지) 트레킹 ○ 고랭지 농사 체험(산채 수확)
		검룡소	○ 검룡소 지형·지질탐방(검룡소 오름길 트레킹)
제2코스	흑백문명(석탄과 석회암) 발상지 여행	용연동굴	○ 석회동굴 탐사
		황지	○ 황지(카르스트 용천) 지형·지질탐방
		석탄 최초 발견지	○ 금천 석탄 최초발견지 ○ 연탄구이 맛보기

V. 결론 및 제언

강원도 태백시에는 한강, 낙동강 그리고 삼척 오십천의 분수계가 있다. 한강과 낙동강은 남한의 중요한 수자원이며 오랜 시간 정치·경제·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태백시에서는 한강, 낙동강, 삼척 오십천을 삼수라 부르며 세 하천의 분수계가 만나는 지점을 삼수령이라 부르며 관광자원으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삼수령 일원은 물(하천)과 산지와 관련된 전통적인 지리적 아이디어의 발상지로 태백산맥, 석회암과 석탄층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다양한 지형·지질유산과 독특한 문화(화전·광산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삼수령은 '분수계로서 지니는 높은 지리적 함의', '주변에 분포하는 다양한 지형·지질유산' 등 양질의 지오투어리즘의 개발 및 도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다.

이와 동시에 스토리텔링,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 해설사 교육 등 안내 해설 체계와 서비스 시설 구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오투어리즘의 주된 목적이 지구과학적 지식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지형과 지질자원에 대한 지식의 확산체계 구축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지형·지질유산 보전과 활용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수용하는 인식의 확산과 체계의 정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지오투어리즘의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파트너십 구축(마을, 전문관광업체, 지역 음식·숙박업체 등) 등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삼수령의 지오투어리즘 정착은 추후 태백시 일원의 지오파크 인증 추진에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오파크의 인증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삼수령을 중심으로 한 지오투어리즘의 개발과 도입은 태백시 일원 지오파크 인증 준비의 기초 작업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충분한 시간과 사전작업을 거쳐 삼수령 일원의 지오투어리즘의 개발 및 도입을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관동대학교 박물관, 1997, 「태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도 태백시.

권혁재, 2000, “한국의 산맥,” 대한지리학회지, 35(3), 389-400.

권혁재, 2005, 「한국지리-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김강산, 1989, 「태백의 지명유래」, 태백문화원.

김도현·장동호, 2010, 「3대 강 발원과 태백」, 강원도민일보.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오파크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7-66.

김창환, 2011, “강원도 DMZ 지리공원(Geopark)의 지오

사이트 선정과 스토리텔링,”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1), 117-134.

김창환, 2014, “교육과 학습의 장(場)으로서 지질공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3(2), 89-96.

대한지리학회, 2008, 「한국의 지명유래집-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박미영·박경, 2011, “지오투어리즘과 지리학의 역할,” 대한지리학회, 2011년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논문 요약집.

박민영, 2012, “한국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종철·장동호, 2011, “GIS 분석과 현장답사에 근거한 삼수령의 위치 결정,”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1), 69-79.

윤순옥·황상일·이광률, 2007, “강원도 영동·영서 하천의 하안단구 지형 발달 - 내린천, 연곡천, 골치천, 오십천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3), 388-404.

이우평, 2007, 「지리 교사 이우평의 한국 지형 산책1」, 도서출판 푸른숲.

이민부·한주엽, 2000, “분수계의 지형적 개념과 기능,” 대한지리학회지, 35(4), 503-518.

손일, 2003, “분수계의 지리적 함의와 백두대간,” 한국지형학회지, 10(1), 110-119.

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전영권, 2010, “한국의 지오투어리즘,” 한국지형학회지, 17(4), 53-69.

조선광문화회 편, 1913, 「산경표」, 민속원(1995년 영인본).

Gates, A.E., 2006, Geotourism: A Perspective from the USA, In Dowling, R.K. and Newsome, D., eds.,

Geotourism, Oxford: Elsevier, 3-25.

김창환

Dowling, R.K. and Newsome, D. eds., 2010, *Global Geotourism Perspectives*, Goodfellow Publishers.
한국일보, 2012년 5월 1일, “사색의 향기/5월 1일” 바깥을 경영하는집”.

교신 : 김창환,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hillskim@kangwon.ac.kr)

Correspondence : Chang Hwan Kim, 24341,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mail: hillskim@kangwon.ac.kr)

투 고 일: 2016년 3월 21일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5일

투고확정일: 2016년 4월 6일